

박사학위 논문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가족로망스 연구 : 이광수와 염상섭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김 승 민

2011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권영민 선생님

본고는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작가인 이광수와 염상섭의 소설작품들을 ‘가족 로망스’라는 서사구조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정에 대한 소설적 응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가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의미와 가족 외부의 사회적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의미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놓쳤던 문제들은, 가족 내부 구성원들의 상호 규정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정체성이 가족 외부에서 그들을 규정하는 시선들과 마주치면서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확장시켜나가게 된다. 식민지 현실을 묘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서의 가족소설은 이처럼 ‘가족로망스’의 개념을 도입할 때 ‘나’의 근원을 탐구할 수 있는 정체성의 서사로 자리매김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좀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프로이트의 ‘가족로망스’라는 개념을 토대로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장편소설의 서사 구조의 의미를 밝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지금까지 ‘개인’ 또는 ‘주체’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석에 매달려온 초기 근대소설의 연구에서 벗어나, ‘가족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의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규명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소설이 식민지 경험을 문학으로 형상화함에 있어 '가족'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구조화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현실에 대한 개인의 수용과 이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갈등 양상이 어떻게 문학화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던 작가들의 정치적 무의식의 구조와 작동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은 '상상력'의 구현 방식이다. '상상력'이라는 표현은 '허구적인 것'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주체가 자신을 향해 드리워져 특정한 의미를 지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외부의 시선과 스스로 되고자 하는 어떤 모습을 향한 내부의 욕망을 교차시킴으로써 유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수용해 나갈 수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는 '개인' 또는 '주체'의 성장이 독립적 주체, 또는 개성의 발견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내면화하는 가운데 독립적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성' 또는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체성은 고정되고 정태적인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수행적(遂行的)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핵심적인 과제는 자신 또는 가족 내부에서 상호 규정된 정체성과 규범, 제도 등 가족 외부에서 그들을 규정하는 시선이 충돌할 때 주체에게 발생하는 혼란이다. 이러한 혼란을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허구적 서사 공간으로 끌어들이 주체의 미묘한 흔들림을 서사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곧 인물의 외양과 내면을 형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서사 구성요소인 명명, 인물간의 관계설정, 핵심 갈등을 향하는 부수적 사건들의 배치, 당대의 시대상을 은유적으로 표상하는 사물들과 인물 사이의 관계 등을 통해 가장 섬세하게 포착해낸 작가가 이광수와 염상섭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광수 작품을 '가족로망스'의 관점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가족서사'의 관점에서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이광수 작품의 의미가 ‘가족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확장되는 인물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규명될 수 있었다. 한편, 보수적 가족주의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염상섭의 작품들은 ‘가족로망스’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오히려 가족의 차원에서 벗어나 가족 외부로 시선을 확장해 나가는 주체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이광수가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고 이를 이상화시키는 것으로 현실에서 멀어져 갔다면, 염상섭은 보수적 ‘가족주의’에 함몰되지 않음으로써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비판적 인식을 견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서사 갈등의 발생과 심화, 전개 등에 관여한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근대적 주체의 대응 양상을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는 구조로 환원하여 문학과 사회 구조의 긴밀한 연관성을 우리 소설문학의 한 특징으로 밝혀냈던 기존의 연구들을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주체들의 자기 이해 방식에서 비롯되는 세계 인식의 차이가 ‘가족 관계(구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작동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를 주체의 기원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를 논구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문학 내부에서 발견되는 자기를 향한 이중적 시선의 이면에 자리한 구분짓기의 논리, 命名을 통한 자기확인의 전략과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관계맺기 양상 등 제반 소설적 상황들의 내적 동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우리문학의 응전력에 대한 규명뿐 아니라 문학연구의 현장성도 함께 겨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